

참고도서목록

1. Aalders, G.Ch., *Jeremia*, in : *Korte verklaring*, Kampen<sup>2</sup> 1954.
2. Augustine, A., *Contra mendacium*, in :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CSEL) 41, ed. by I.Zycha, Prage 1900.
3. ———, *De mendacium*, in : CSEL 41.
4. Alfrink, B.J., *Jozua*, in : *De boeken van het Oude Testament*, Roermond 1952.
5. Calvin, J., *Opera*, in : *Corpus Reformatorum* (CR) 52/53, Brunsviga 1882.
6. Child, B.S., *Exodus*, in :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1974.
7. Douma, J., *Christian Morals and Ethics*, Winnipeg, Manitoba 1980.
8. Gelderen, C.V., *Het Boek Hosea*, in :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1953.
9. Gnllka, J., *Der Epheserbrief*, in :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Freiburg 1971.
10. Goslinga, C.J., *I Samuël*, in :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1968.
11. Holwerda, B., *De dingen die ons van God geschonken zijn* IV, Goes 1953.
12. Keil, C.F., *Die Bücher der Könige*, in : *Biblischer Kommentar über das Alte Testament*, Leipzig 1865.
13. Klopfenstein, M.A., *Die Lüge nach dem Alten Testament*, Zürich 1964.
14. Köhler, L., *Old Testament Theology*, tr, by A.S.Todd, London 1957.
15. Murray, J.,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1971.
16. Rienecker, F.,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in : *Wuppertaler Studienbibel*, Wuppertal 1961.
17. Schreiner, J., *Die zehn Gebote im Leben des Gottes Volkes*, München 1966.
18. Selms, A.V., *Jeremia II*, in :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1967.
19. Stamm, J.J., *The Ten Commandments in Recent Research*, tr, by M..E.Andrew, London 1967.
20. Stroete, G.T., *Exodus*, in : *De boeken van het Oude Testament*, Roermond 1966.

進 步 主 義 運 動 以 後 美 國 的 教 育 改 革 動 向

金 聖 洙\*

◇ 目 次 ◇

- I. 序論
- II. 학문중심 교육개혁 운동
  - 1) 학문중심 교육개혁 운동의 배경
  - 2) 탁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
  - 3) 교육과정의 개혁
- III. 60년대 初의 反文化 운동
  - 1) 反文化운동의 성격
  - 2) 反文化운동의 기원
  - 3) 反文化운동의 학교교육 비판과 그 제안
- IV. "The Return-to-basics" 운동
  - 1) The Return-to-basics운동의 기원
  - 2) The Return-to-basics운동의 학교개혁 제안
- V. 結論

I. 序論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특별히 교육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어 지고 있다. 高度로 산업화되고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변화 속에서 교육은 어떻게 움직여져 가도록 개혁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은 대체로 두가지 부류의 주장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기술사회에 당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급속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인가 하면, 다른 하나는 기능인으로서의 훈련은 이차적인 것이고 원초적으로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올바르게 길러내는 차원으로 개혁

\*助教授

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요컨대, 교육개혁의 초점이 인력개발에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인간교육에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전통주의 교육에 반기를 든 진보주의자들의 교육개혁운동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몇가지 교육개혁운동들을 살펴 봄으로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교육개혁운동이 취해야 할 방향모색에 필요한 원리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학문중심 교육 개혁운동

### 1) 학문중심 교육 개혁운동의 배경

전혀 예기치 않았던 소련의 스포트닉 성공이후 西歐, 특별히 미국에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립단체들이 우주경쟁에서 소련을 앞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금을 내놓았다. 학교교육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압력에 기인해서 연방정부는 국방교육법(the 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를 통과시켰고,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과학교육의 개선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게 되었다. 1957년 11월 Eisenhower대통령은 미국 전국의 각 학교위원회및 사친회에 촉구하기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수준이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우주시대의 엄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듬해 1월의 State-of-the-Union Message 및 Budget Message에서는 소련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안전과 계속적인 번영은 과학지식의 확충에 달려있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과학교육을 자극,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교육의 질적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였다.<sup>1)</sup>

이와같은 일들로 인해서 학교교육의 핵심적 과제는 이제 아동의 흥미와 자유문제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현장에는 자연히 소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수학이나 과학, 외국어와 같은 과목들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과학기술교육에의 관심이 결국은 학문중심의 교육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졌다.

### 2) 탁월성(excellence)추구를 위한 교육

과학이나 수학, 외국어 과목등에 대한 급증하는 관심과 학생들에 대한 고도의 성취수준 기대,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소질이 잠재되어 있는 영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등은 학교교육에서

1) Cremin, L.A., 1958: A year of crisis in education, *School Executive*, 78:46-51, Jan 1959, p.46.  
2) Eisenhower, D.D., I recommend...(Excerpts from three message to the eighty-fifth congress, January, 1958), p.3.

개인적 탁월성의 추구라는 이상을 중심적인 과제로 부각시켰다. Rockefeller재단의 연구와 Rickover, Conant, Bruner 및 Gardner등의 연구는 특별히 학교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탁월성의 추구를 강조하였다.

Rockefeller보고서는 당면한 군사적 위협 타결이라는 급박한 필요성때문에 과학교육 분야에서의 탁월성 추구를 핑장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함축하고 있는 탁월성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개인적 재능과 능력의 상이성이 사회에 다각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또한 학교교육이 비인간적인 거대한 제도뒤에 있는 개인을 잊어버리거나 과학을 강조하면서 과학자를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였다.<sup>4)</sup>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탁월성 추구의 이상은 어디까지나 그 자체가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Gardner가 생각했던 탁월성의 개념도 Rockefeller 보고서와 어느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 Gardner에게 있어서 개인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동에 대한 관심이라는 맥락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sup>5)</sup> 모든 형태의 교육은 각 개인이 독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신장 발전시켜야 하며 학교와 사회는 다양한 능력수준과 성취종류에 대한 모든 가능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Gardner는 주장하였다.<sup>6)</sup>

뿐만아니라, 카네기 재단의 지원을 받아 각급학교들을 광범위하게 방문하고 조사했던 Conant도 종합고등학교(Comprehensive high school)의 독특한 특색, 곧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또는 재능이 있든지 열등하든지 간에 “모든 청소년”들을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교 교육을 지지하였다.<sup>7)</sup> Conant에 의하면 종합고등학교가 바로 다원화된 미국사회의 특징을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줌으로서 아동의 상이한 요구와 능력수준을 광범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onant 역시 학문적으로 재능있는 아동들이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Bruner 역시 학교교육은 모든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적인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와같은 종류의 탁월성 성취는 학교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sup>8)</sup>

“We may take as perhaps the most general objective of education that it cultivate excellence; but it should be clear in what sense this phrase is used. It here refers not only to schooling

3) Rockefeller Brothers Fund, *The Pursuit of excellence, Panel report V of the special studies project*, New York:Doubleday, 1958, pp.16-17,45.

4) *Ibid.*, pp.1-10.

5) Gardner, J.W., *Excellence can we be equal and excellent too?*, New York:Harper & Row, 1961, p.91.

6) *Ibid.*, pp.101-102.

7) Conant, J.B., *The American high school today*, New York:McGraw-Hill, 1959.

8) Bruner, J.S., *The process of education*, New York:Vintage Books, 1963, p.9.

the better student but also to helping each student achieve his optimum intellectual development.”

한편으로, Rickover 같은 이는 개인적 탁월성 추구의 개념을 보다 협의적으로 이해하면서 미국의 장래 번영과 자유는 학교의 학적수준을 대규모로 높임으로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sup>9)</sup> 학교는 문화의 전승과 지적훈련이라고 하는 전통적 학교교육의 목적에 도달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아동들이 자기의 지적능력을 가능한한 최고도의 수준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영재아들을 조기에 확인하여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Rickover는 주장하였다.<sup>10)</sup>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와 교육자들이 개인적 탁월성을 지적탁월성 추구라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한결음 더 나아가 학과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점수 요구 및 모든 아동에 대한 다량의 숙제부과, 난해한 학과목에 대한 강조등으로 탁월성의 개념을 해석 적용하였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등의 기본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함과 동시에 이들 학과목에서 그들의 최선을 다할것을 교사들로부터 강요받았다.

### 3) 교육과정의 개혁

앞서 언급한바와 같은 개인적 탁월성의 추구라고 하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먼저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과학 분야에까지 걸친 대규모의 교육과정 개혁운동을 요청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의 일반적 정신은 35명의 유능한 과학자, 학자, 교육자들이 참석한 Woods-Hole Conference의 보고서에서 J.S.Bruner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해 보여주고 있다. “We begin with the hypothesis that any subject can be taught effectively in some intellectually honest form to any child at any stage of development...”<sup>11)</sup> 이와같은 가정위에서 이전에는 상급학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류해 두었던 개념들이 이제는 초급학년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Woods-Hole 회의는 미국교육의 실패가 상호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무작위적 집합정도로 밖에 볼수 없는 당시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이와같은 상호관련성이 없는 “사실들”(facts)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의 구조를 대표해주는 조직개념 또는 원리를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재조직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Bruner에 의하면 이와같은 구조야말로 각 학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골격이며 이 원천에서부터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어지는 것이다. 사실적 지식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는 가르칠 필요성이 없으며 단지 학문의 구조를 지적으로 조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 곧 새로운 지식을 예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9) Rickover, H.G., *Education and freedom*, New York:P.Dutton, 1959, p.15.

10) *Ibid.*, p.115.

11) Bruner, *op. cit.*, p.33.

이와같은 이유에서, 1960년대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개혁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물리학, 생물학, 수학및 여타 과목들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련의 학자들이 교과서와 교수자료를 새로이 개편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나타났다. 즉 BSCS(the Biological Science Curriculum Study), PSSC(the Physical Science Study Committee), ESCP(the Earth Science Curriculum Project), ISC S(the Intermediate Science Curriculum Study), SMSG(the School Mathematics Study Group), CBA(the Chemical Bond Approach Project), CHEM(the Chemical Education Materials Study) 등은 바로 60년대의 교육과정 개편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서 정부당국과 몇몇 교육재단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전국규모로 개최된 특별 연수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기술의 향상을 독려하였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와같은 혁신이 성공적으로 끝맺을 수 있을것 이라는 높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12)</sup>

교육과정 개혁운동은 실제로 학교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 수학, 외국어 등의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학과목들에 있어서까지도 새로이 개편된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도입되어졌고, 나아가 비록 소수가 참가하긴 했지만 새 교육과정 연수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은 새로운 교재와 기술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유능한 자질을 갖추게도 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 개혁운동은 시초부터 현장교육의 경험이 없는 전문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교재들이 그 수준에 있어서 다수의 일반학생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서 집필된 것도 있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로운 교수재료들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아가, 연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교사들은 새로이 개편된 교과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고, 대다수의 교사들은 전통적인 교수방법의 개선없이 지금껏 가르쳐오던 교과내용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증대시켜 아동들에게 부과하는 정도였다.<sup>13)</sup>

교육과정 개혁운동은 또한 중류계층, 또는 중상층계층 이상 부모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이들 계층의 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sup>14)</sup>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가장 명성있는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들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꺼리거나 주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1960년대의 아동들은 압박하는 치열한 경쟁속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쟁에 단순히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야만 했을 뿐이라고 Doll은 지적하고 있다.<sup>15)</sup>

12) Armstrong, *et. al.*,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Macmillan, 1981, p.39.

13) *Ibid.*

14) Goodlad, J.I., *Facing the future. issues in education and schooling*, New York:McGraw-Hill, 1976, p.9.

15) Doll, R.C., The heat is on (*In. Doll, R.C. & Flemming, R.S. ed. Children under pressure*, Columbus, Ohio:Charles E. Merrill Books, pp.3-14), 1966, p.4.

이와같은 방법으로, 교육과정 개혁운동은 아마도 교육과정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아동들에 대한 가중된 압박도 동시에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기술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배경으로한 아동에 대한 이와같은 가혹한 압박은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일련의 소위 소외된 집단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反文化운동(the Counterculture Movement)을 일으키는 부분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 Ⅲ. 60년대 初의 反文化운동

#### 1) 反文化운동의 성격

反文化(The Counterculture)는 원래 “the hippie 문화”, “the rock-and-drug문화” 또는 “the adversary 문화” 등으로 지칭되었는데 지금은 “the new culture”<sup>16)</sup> 또는 “new humanism”<sup>17)</sup>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여하튼, 이 문화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같이 기성사회의 지배적인 양식에 역행하는 가치와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Battle이 말하는 바와 같이 反文化운동은 전통적인 모든 가치체제와 질서에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였다. “The Counterculture continues to assault the American people and perhaps of the people of the world, for whatever happens in America is likely to happen elsewhere in the world.”<sup>18)</sup>

反文化운동의 지지자들이 저항한 것은 기성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질서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실제로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치 그 자체를 도전하고 있었다. Simmons와 Winogra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결혼제도의 신성함, 혼전 순결의 덕, 시민적 복종, 부의 축적, 부모나 학교 및 정부의 권위와 능력등 기존사회의 토대 그 자체, 요컨대 기존질서(the Establishment)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문시 했던 것이다.<sup>19)</sup>

反文化운동이 여러가지 특색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나 아마도 그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무엇보다도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자아의 가치회복에 대한 강조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反文化운동의 대두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현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에 대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반동이야말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때문에 Mumford같은 이는 거대한 기계문화가 인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기계문화를 창출하고 영위했던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반문화운동의 한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sup>20)</sup> 기계가 인간의 종이되는 대신에 주인이

16) Battle, J.A., The new idea in education and the new culture (In. Battle, J.A. & Shannon, R.L. ed. *The new idea in education*, New York:Harper & Row, pp.3-10), 1974, p.3.  
 17) Broudy, H.S.,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In. Walberg, H.J. ed. *American education: diversity & research*, Washington, D.C., A Forum series of the Voice of America, pp.15-24), 1979, p.18.  
 18) Battle, *op. cit.*  
 19) Simmons, J.L. & Winograd, B., *It's happening*, Santa Barbara, Cal.:Marc-Laird Publications, 1966, p.12.  
 20) Mumford, L. Reflections: science and technology III, *The New Yorker*, 24 Oct.:pp.55-127, 1970.

되어가는 현대사회를 보면서 반문화운동의 지지자들은 인간 존재와 인간적 생활의 가치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인간을 기술적 제도의 산물로 취급하는 사회, 그리고 인간의 제 요구를 산업적, 기술적 요구에 예속시키는 사회에 맹렬히 항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새”문화만이 보다 더 인간적인 공동체와 새로이 해방된 개인을 약속해 줄 수 있다고 이들은 확신하였다.<sup>21)</sup> 이리하여 새로이 해방된 개인, 인간존재의 고결성, 그리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라는 이상이 반문화운동의 주창자들에게는 사회개혁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현대 인본주의 사상의 종교적 動因인 자유로운 인간성의 理想(the ideal of the free human personality)이라는 것이 반문화운동의 사상적 기저가 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2)</sup>

반문화운동은 인간자아가 차지해야만 하는 올바른 영예의 위치를, 특별히, 인간생활의 情意的, 意志的 局面에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문화운동은 Anarchism, Socialism, Pacifism, Zen Buddhism, Existentialism(Kierkegaard, Marcel, Camus, Heidegger), New Marxism, New Hegelianism, Maoism, Oriental Philosophies, Magic, the Occult, Consciousness-raising drugs, existential psychologists 및 Third-World revolutionaries-(Frantz Fanon, Kwane Nkrumah, Ernesto Ché Guevara)<sup>23)</sup>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 2) 反文化운동의 기원

反文化운동의 출현배경으로서 하나의 요인만을 끄집어 낸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실제로 다양한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과학과 기술에 의한 미국사회의 물질적 번영, 이로인해 야기된 기술문명사회의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 비인간적 관료주의, 대규모의 법인체, 인간생활의 비인간화와 산업주의, 그리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 스포츠닉 이후 나타난 학교의 지적교육 강화, 월남전에 대한 항거운동등이 반문화운동의 출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sup>24)25)</sup>

과학과 기술은 1950년대를 통하여 미국사회에 지속적인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이 전례없던 사회적 번영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경제적인 염려와 부담에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서 그들의 힘을 이상주의적인 관심사에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들 세대에게는 지금껏 기성세대가 추구해 오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인 목적으로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 젊은 세대는 前 세대가 이룩한 사회적 번영과 안정을 단

21) Reich, C.A., *The greening of America*, New York:Random House, 1971, p.2.

22) Van der Walt, J.L., *Enkele irrasionalistiese strominge in die fundamentele opvoedkunde*, Potchefstroom:PU vir CHO, 1983, p.39.

23) Broudy, H.S., *op. cit.*, p.18.

24) Roszak, T., *The Making of a counter culture: reflections on the technocratic society and its youthful opposition*, London:Faber and Faker, 1970, p.23.

25) Keniston, K., *Youth and dissent: the rise of a new opposition*, New York: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p.25-26.

순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세대의 핵심적 가치들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거나 자기들의 생활에 적절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문화운동은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병폐들에 대한 항거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은 보다 중요하며 기동성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새로운” 사회에서 지금까지 전통적 가치를 공급해 오던 가정이나 교회, 지역사회등과 같은 기구들이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인 사회제도들이 지나치게 대형화되고 관료주의적인 경향을 띄게 됨에 따라 이들 제도들로부터 도움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인간적인 온화감이나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젊은 세대는 관심과 사랑, 소속감의 추구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전통적 사회제도 바깥에서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생활의 비인간화, 비인간적 관료주의, 산업주의등과 같은 현대기술사회의 모든 특징들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sup>26)</sup>

중류계층 부모들의 허용적인 자녀 양육태도 역시 반문화운동에 기여했다. 이와같은 양육태도는 아동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연장시킨 반면 기술사회라는 실제세계에 직면해서 살아가도록 아동을 준비시키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sup>27)</sup>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학교 제도는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소외되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스포츠닉 이후의 지적인 탁월성의 추구라는 새로운 압박 역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문화운동의 출현에 한 몫을 기여하였다. 새 교육과정의 개편등 일련의 교육개혁이 있었지만 일선 교육의 현장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껏 실시해 오던바를 단순히 그대로 되풀이 할 뿐이었다. 당시의 이와같은 교육실체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잘 대변해 보여주고 있다.

A 1957 study of homework in grades five through twelve in thirty-five public school system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eachers who did anything to respond to the scare assigned about as much homework as they had assigned before; their twenty sentences in language now grew to forty, and their fifteen mathematics problems became thirty. But the teachers assigned the same old sentences and the same old problems. Thus, the quality of what children were learning was obviously no better than it had been previously.<sup>28)</sup>

그러나 자기 자녀들이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동에게 부과하는 과제들의 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기를 주저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아동에 대한 압박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때로는 학과점수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보상 또는 징벌체제를 부과함으로써 그 압박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sup>29)</sup> 知的 탁월성을 위한 이와같은 압박의 결과

26) Battle, J.A., *op. cit.*, p.4.

27) Roszak, T., *op. cit.*, pp.31-32.

28) Doll, R.C., *op. cit.*, p.3.

29) Heffernan, H., Challenge or pressure? (In Doll, R.C. & Fleming, R.S. ed. Children under pressure,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pp.21-34), 1966, pp.26-27.

는 분명하였다. 학교교육의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미혼모의 증대, 그리고 학업성취수준에 있어서 하위권과 상위권간의 현저한 격차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sup>30)</sup>

이와같이, 진보주의 교육의 방임적 경향에 대한 학문적 개혁운동은 또 다른 학교교육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는 반문화운동의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 3) 반문화운동의 학교교육 비판과 그 제안

반문화운동의 학교교육 비판과 그 제안은 그 정도와 종류에 있어서 비판가들에 따라 相異한 양상을 띄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가지의 주요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개인적 자유의 문제이고,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인간화 문제, 그리고 교육적 관료주의의 문제 및 학습재료의 적절성 문제등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문화운동은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다. 따라서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것을 거절하였다. 학교라는 제도 역시 이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감각, 우둔한 신봉, 맹목적 복종등을 가르치는 기관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아동들로부터 개인적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적인 곳이었다. 규정된 교과라든지,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율을 제정하는 학교의 권리, 시험과 점수제도 등과 같은 것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으로서 간주되었다.<sup>31)</sup> 따라서, 개인적 자유의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의 제안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즉, no more suspensions, no involuntary transfers, no exclusions from classes, no detention, no discharges, no harassment of students; no cops in schools; no programme cards; an end to general and commercial diplomas; open admissions to college; no military recruitment in schools<sup>32)</sup> 등과 같은 제안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혼을 했거나 行動主義者이거나 임신 했거나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고 언론, 출판, 집회등의 무한정한 자유를 요구하였다. 개방교실, 인간관계, 집단치료, 역할수행, 자기표현,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非 西歐文化의 연구등과 같은 것들은 모두가 억압으로부터 아동을 해방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반문화운동의 지지자들은 학교라는 제도를 인간존재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Montgomery County Student Alliance에 의하면 학교교육은 아동을 비인간화 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었다.<sup>33)</sup> 교육의 과정 자체가 아동의 창의성과 신뢰성, 主導性, 개성, 자아존중감, 호기심등을 말살시킨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Montgomery County Student Alliance는 학교교육의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열

30) Doll, R.C., *op. cit.*, pp.4-5.

31) Gross, B. & Gross, R., ed. *Radical school reform*, London: Victor Gollancz, 1971, pp.148-150.

32) Birmingham, J., ed. *Our time is now: notes from the high school undergroun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pp.142-147.

33) Gross, B. & Gross, R., *op. cit.*, p.147.

거하였다.<sup>34)</sup>

- \* The school system was based upon fear from the first grade onward. Punishments took the form of bad grades, punishment from authorities, humiliation and ostracism, and disciplinary actions;
- \* Schools compelled students to be dishonest. In order to be "successful", students had to deny and suppress their true feelings that were not acceptable to the system;
- \* Students quickly learned what types of responses were likely to be successful at playing the school game. Thus, their approach to problems changed from honest inquiry and desire to learn, to that which would earn the grade;
- \* The school system destroyed the desire to learn by replacing the natural joy of discovery with an immediate set of rewards, which became ends in themselves;
- \* The school system, with its dishonesty and premium on dutiful obedience, caused resentment and alienation among students;
- \* Schools fostered conformity and blind obedience to authority. Students were forced to adopt the values and priorities of the educational system;
- \* Schools stifled honesty of feeling and self-expression through their artificial system of rewards and punishment;
- \* Schools, through their isolation from all cultural values other than those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solidified and perpetuated local prejudices. They thus prevented students from developing broad perspectives of the world;
- \* Perhaps most tragic, the schools fostered self-hate in students by labelling them early on as failures. This labelling tended to act as a self-fulfilling prophecy which resulted in hatred of the self or of others.

학교교육을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하였기 때문에 이들 반문화운동의 지지자들은 학교교육의 인간화를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소외현상에 대한 해독제로서 옹호하였다. 학교교육의 인간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들은 먼저 교사-학생간의 엄격하고 부정적하며 판에 박은듯한 형식적, 비인간적 역할관계를 인간적이며 협동학습적인 관계역할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험과 점수, 경쟁제도등의 폐지를 요청하였고 교과서 및 기타 모든 재료가 권위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요컨대 모든 아동들이 교사의 점수제도, 진급 및 신입장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가 주는 공포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교육적 관료주의 역시 반문화운동에서 보는 비판의 문제였다. 이들에 의하면 학교라는 공동체는 주요한 세 집단, 즉 행정가, 교사 및 학생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참으로 효율

34) Gross, B. & Gross, R., *op. cit.*, pp.148-150.

적인 학교정책은 이 세 집단의 상호결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집단은 교육적 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학교의 주요정책 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통제방식을 요청하였으며 특별히 학생들 자신들의 신문을 스스로 조직, 영위, 배포하는 권리와 진정한 학생자치회의 형성권리를 요청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기득권을 가진 교육적 관료주의 체제로부터의 자유와 자율성의 획득이었다. 혁신적인 힘의 재 분배를 통해서만 중류계층 교사집단의 영향력이 분쇄되는 이상적인 학문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문화운동의 주창자들은 또한 학교교육을 경직되고 무미건조하며 적절성이 없다고 공격하였다. 이들은 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다 직접적인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를 소홀히 하고 지적인 추구만을 목표로 함으로서 실제 생활에의 적절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예를들어, 반문화운동노선에서 Battle은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을 비판하였다.<sup>35)</sup>

With the leaders of our educational and political life giving so little attention to the serious problems created by technology it is no wonder that our society is running amuck, seemidly possessed with a homicidal mania.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성이 있는 학습은 무엇보다도 우주여행(space travel)의 문제라든지, 도시화(urbanization)의 문제, 의사소통의 수단, 핵 에너지, 인공두뇌학 및 지금까지 미개발된 해양자원등과 관계되는 내용들이었다. 아동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제생활과 접촉해야지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의 교과서적인 기존 해답들만을 제공받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인간을 생활과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은 지식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아동들의 가치와 사상, 행동에 통합되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될 때에만 교육은 생활에 적절성을 떨 수 있다고 Battle은 주장하였다.<sup>36)</sup>

이와같은 반문화운동의 학교교육개혁노력의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 초기를 통해서 학교의 제반규율들이 완화되고 아동들에게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과정 또한 인종학적인 문제, 환경적, 사회적인 문제들 및 기타 보다 적절성을 띤 학과목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방되었다. 필수적인 교과과정들 및 점수제도들이 일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보다 많은 선택과목들이 허용되었다. 아울러, 교사-학생의 역할관계도 보다 더 인간적인 관계로 바뀌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문화운동의 학교개혁노력이 학교교육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문화운동 자체가 또 다른 학교교육의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그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디시프린(훈련)의 결여라는 문제와 학문적 성취수준의 일반적 저하현상이라는 문제들이었다. '80년대에 나타난 The Return-to-basics Movement는 바로 반문화운동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反動이라고 볼 수 있다.

35) Battle, J.A., The education we need today and why we need it (*In* Battle, J.A. and Shannon, R.L. *ed. The new idea in education*, New York:Harper & Row, pp.87-94), 1968, p.89.

36) Battle, J.A., *Ibid.*, p.90.

#### IV. "The Return-to-basics" 운동

##### 1) The Return-to-basics 운동의 기원

The Return-to-basics는 가장 최근의 학교교육 개혁운동 가운데 하나로써 1970년대 초기에 시작되어 급격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Rich의 보고에 의하면<sup>37)</sup> 미국에는 1981년 현재 5,000여 개 이상의 "근본주의 학교"(fundamental school)들이 있는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이 표시하는 관심은 Sputnik이후 직접적으로 나타난 관심들과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 Return-to-basics 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나타난 학문적 수준의 일반적인 저하현상 (특히 3R's 습득에 있어서)에 놀란 부모 및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주창되었다.<sup>38)</sup> 학교규율의 완화, 훈련의 부족, 성적 불량아동의 자동진급, 반문화운동 비판가들의 노력 결과로 나타난 잡다한 선택과목들의 배열등등이 기본적 지식 또는 기술의 저하를 초래한 원인들로서 흔히 열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교육적인 요인들 (예를들면, 급속한 사회변화와 가치혼란, 학교개혁운동의 실패 및 代案 학교 설립과 같은 사회적 경향)이 the Return-to-basics운동의 출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과성적의 저하현상과 훈련의 부족현상 때문에 부모들과 많은 관심있는 시민들이 학교학습의 質에 상당한 정도의 불만족을 표시하게 되었다. 당시의 여론조사(The seventh annual Gallup Poll)는 모든 부모의 거의 60%정도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의 자녀들을 엄격한 훈련과 3R's 및 교복등과 같은 규율을 강조하는 학교로 보내겠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sup>39)</sup>

##### 2) The Return-to-basics운동의 학교개혁 제안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Wellington은 요약해 주고 있다.<sup>40)</sup>

1. To teach students to read, write, speak, spell, and compute accurately and effectively.
2. To teach students to know and understand their history, heritage, and governmental structure, and to reason in a logical and objective manner.
3. To challenge each child to do his best. The child's work is to be done properly and on time. It is to be corrected by the teacher, so that the child may experience success and

37) Rich, J.M., Back-To-Basics: a reappraisal (In Rich, J.M. ed. *Innovations in education: reformers and their critics*, Boston: Allyn and Bacon, pp.325-332), 1981, p.325.

38) Ornstein, A.C., Curriculum contrasts: a historical overview, *Phi delta kappan*, 63(6):404-408, Feb. 1982, p.405.

39) Wellington, J. k, American education: Its failure and its future, *Phi delta kappan*, 58(7):527-530, March 1977, p.527.

40) Wellington, J.K., *Ibid.*, p.529.

satisfaction, which are to be regarded as the true rewards of endeavour.

4. To ensure accountability. Examinations, grading, and reports are essential so that each student may come to know his own powers and limitations.
5. To reinforce parental teaching of citizenship, respect, discipline, and personal responsibility.

여기서, 우리는 이 운동의 지지자들이 주로 두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본 학과목의 학문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의 강화문제와 학생의 훈련(discipline) 강화문제이다. 기본 학과목의 학문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들은 3R's 과목에 대한 강조와 어학, 역사, 생물, 화학, 물리등과 같은 학과목에 대한 강조를 제안하였다. 반 문화운동의 지지자들이 강조한 스쿠버 다이빙이나, T.M.(Transcendental Meditation) 및 하이킹과 같은 과목들을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넌센스로 규정하였다. 학습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이들은 또한 경쟁과 학업성취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 점수제도, 능력별 반편성 및 숙제등을 강조하였다. 이들 "근본주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성취로 인한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지만 단순한 노력 그 자체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Rich는 말하고 있다.<sup>41)</sup> 훈련(discipline)의 문제도 이들 Return-to-basics운동의 지지자들에게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 이유는 엄격한 훈련이 없이는 효과있는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체벌을 포함한 엄격한 훈련을 철저히 강조하며 높은 차원의 도덕수준, 성인에 대한 존경, 애국심, 복장규율과 같은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Return-to-basics운동의 실제적인 근거 또는 바탕이 앞서 논의한 바 있는 학문중심 학교교육 개혁운동에 反動을 보인 反文化운동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Yale대학교의 교수인 Bartlett Giamatti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sup>42)</sup>

Today's college students...have lost touch with the language. They are the products of the anti-structures of the time. They have come and are coming out of the 'open classrooms', vertical grouping, modular buildings with 50 pupils to a room. They have come out of 'new math' and its concepts, its logic and set theory, not knowing how to multiply. They have come out of 'individualized instruction' and 'elective systems', not knowing how to listen to anyone else, not knowing how to take a direction. They have come out of the sentimental sixties, where 'repressive' and 'arbitrary' grades were done away with, not able to take the pressure of grading. They have come out of a primary and secondary world where 'personal development' was said to be worth more than achievement, where 'creativity' was the highest goal, and were often completely at a loss about how to cope with their work, with their time, with themselves.

41) Rich, J.M., *op. cit.*, p.316.

42) Wellington, J.K., *op. cit.*, p.528.

이것은 한때 反文化운동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 또는 개성 신장에 방해되는 것으로 거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the Return-to-basics 지지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V. 결 론

지금까지 진보주의운동 이후 나타난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을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교사중심 또는 교재중심의 전통적인 교육에 반기를 든 듀이의 소위 아동중심의 새 교육사상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다가 30년대에서 40년대에 이르면서 듀이의 영향은 거의 “숭배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Martin S. Dowrkin 같은 이는 *Dewey on Education*의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듀이에 대한 숭배자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저주자도 되지 말고 듀이 자신이 소중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57년 소련의 스포트닝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민의 公教育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문적인 교육자들에 대한 원망이었으며, 나아가 존 듀이적인 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판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소위 학문중심 교육개혁운동은 진보주의적 아동중심 교육이 결과적으로 초래했던 빈약한 훈련(Discipline), 확고한 가치기반의 결여, 유약한 교육방법등에 대한 강력한 反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각 학문의 기본적 개념과 논리적 구조, 과학적 방법들을 요청하였다. 스포트닝 이후 나타난 公教育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소리에 학문적 개혁운동은 과학과 기술공예 및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재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학교 교육의 질적인 개선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동시에 아동들에게 과도한 압박감이 부여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다시금 反文化운동과 같은 과격주의 운동(radicalism)의 출현에 이바지하는 요인이 되었고 1980년대 초반의 “Return-to-basics”운동은 또다시 이 반문화운동에 대한 反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진보주의 운동 이후에 나타난 미국의 교육개혁운동의 振子는 현대 인간주의적 종교적 動因의 과학(science) 또는 자연(nature)이라는 한 극단과 인간의 자유(freedom) 또는 퍼스낼리티(personality)라는 다른 극단 사이를 계속적으로 진동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교육개혁이 안고있는 진정한 과제는 인력개발이나 인간교육이나 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학교교육)이 과학(science)과 퍼스낼리티(personality)간의 주기적인 진동권에서 벗어나 참된 종교적 動因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시급히 모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목록

- ARMSTRONG, D.G., HENSON, K.T. & SAVAGE, T.V.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Macmillan, 1981.
- BATTLE, J.A. The education we need today and why we need it. (In BATTLE, J.A. and Shannon, R.L. ed. *The new idea in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p.87-94), 1968.
- BATTLE, J.A. The new idea in education and the new culture (In. BATTLE, J.A. & Shannon, R.L. ed. *The new idea in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p.3-10), 1974.
- BIRMINGHAM, J. ed. *Our time is now: notes from the high school undergroun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 BROUDY, H.S.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In. Walberg, H.J. ed. *American education: diversity & research*. Washington, D.C.: A Forum Series of the Voice of America, p.15-24), 1979.
- BRUNER, J.S. *The Process of Educa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63.
- CONANT, J.B. *The American high school today*. New York: McGraw-Hill, 1959.
- CREMIN, L.A. 1958: A year of crisis in education, *School Executive*, 78:46-51, Jan., 1959.
- DOLL, R.C. The heat is on (In. DOLL, R.C. & FLEMMING, R.S. ed. *Children under pressure: a collection of readings about scholastic pressure*.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Books, p.3-14), 1966.
- EISENHOWER, D.D. I recommend... (Excerpts from three messages to the eighty-fifth congress. January, 1958).
- GARDNER, J.W. *Excellence: can we be equal and excellent too?* New York: Harper & Row, 1961.
- GOODLAD, J.I. *Facing the future: issues in education and schooling*. New York: McGraw-Hill, 1976.
- GROSS, B. & GROSS, R. ed. *Radical school reform*. London: Victor Gollancz, 1971.
- HEFFERNAN, H. Challenge or pressure? (In. DOLL, R.C. & FLEMING, R.S. ed. *Children under pressure*.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p.21-34), 1966.
- KENISTON, K. *Youth and dissent: the rise of a new oppos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 MUMFORD, L. Reflections: science and technology III, *The New Yorker*, 24 Oct.: p.55-127, 1970.



ORNSTEIN, A.C. Curriculum contrasts: a historical overview, *Phi delta kappan*, 63(6):404-408, Feb., 1982.

REICH, C.A. *The greening of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1971.

RICH, J.M. Back-To-Basics: a reappraisal (In. Rich, J.M. ed. *Innovations in education: reformers and their critics*. Boston: Allyn and Bacon, pp.325-332), 1981.

RICKOVER, H.G. *Education and freedom*. New York: E.P. Dutton, 1959.

ROCKEFELLER BROTHERS FUND. *The Pursuit of excellence*. Panel report V of the special studies project. New York: Doubleday, 1958.

ROSZAK, T. *The making of a counter culture: reflections on the technocratic society and its youthful opposition*. London: Faber and Faker, 1970.

SIMMONS, J.L. & WINOGRAD, B. *It's happening*. Santa Barbara, Cal.: Marc-Laird Publications, 1966.

VAN DER WALT, J.L. *Enkele irrasionalistiese strominge in die fundamentele opvoedkunde: grepe uit die twintigste-eeuse opvoedingsteoretiese beskouinge*. Potchefstroom: Department Wetenskapsleer, PU vir CHO (Wetenskaplike bydraes van die PU vir CHO. Reeks J: Potchefstroomse Studies in Christelike Wetenskap), 1983.

WELLINGTON, J.K. American education: Its failure and its future, *Phi delta kappan* 58(7): 527-530, March, 1977.

# 요한복음 20:22의 *Λαβετε πνευμα ἁγιον* 해석

李 勝 美\*

◇ 目 次 ◇

- 1. 문제점
- 2. 사고구조분석 방법에 의한 요20 : 22의 해석
  - 가. 요20 : 19-23의 사고구조분석
  - 나. 분석결과
  - 다. 요한(요20 : 22)과 누가의 기록(행2장)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
  - 라. 부활일에 성령주심의 의미
  - 마. 결론

예수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요20 : 22)고 한 말씀에 대한 해석은 신약 본문 해석상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 되어왔다.<sup>1)</sup> 그러므로 먼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던 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에 이에 대한 합당하고 효과적인 해석을 시도 하려고 한다. 보다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 요한복음 20 : 22이 포함된 20 : 19-23의 ‘사고 구조분석’(an analysis of the thought structure)을 통한 해석방법<sup>2)</sup>을 사용하려

\*助教授

1) Gaffi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This statement is one of the Perennial cruxes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R.B.Gaffin Jr.의 “*Perspectives on Pentecost*”, 1980, p.39). A.M. Hunter도 *According to John*(1979, p.188)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했음.

2) 성경의 한 해석 방법인 ‘사고구조분석’(an analysis of the thought structure)방법은 남아(South Africa)의 기독교 고등 교육을 위한 포체프스트롬 대학교(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내의 개혁파 신학교 신약학 과장인 J.C. Coetzee 교수가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다. 이는 종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사용해 오던 모든 건전한 해석 방법을 이용하면서도 특히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자, 본문 사고 구조를 분석해석하는 방법이다. Coetzee는 이미 1979년 남아 신약 협회(NTWSA)에서 그의 특유한 성경 해석 방법인 ‘사고 구조분석’을 이용 “The Holy Spirit in I John”을 발표했다으며, 1981년과 1982년에는,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 of Thought Structure Analysis”와 “An Experiment in Thought Structure Analysis”를 각각 발표함으로써 그의 방법은 현재 학계에 크게 인정을 받고 일반화 되었다. 그의 해석 방법은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성경해석 방법이다.